

려준다. 고음과 중음을 민첩하게 오가며 풍부한 톤을 만들어 준 Federico Olivares의 리듬기타까지 멤버들의 뛰어난 해석력이 돋보이는 곡이었다. 세 번째 곡 'Don't Give It Up'은 Lance처럼 재즈에 특적인 필링을 실어 연주하는 Larry Carlton의 곡이다. 이 곡에서는 곡마다 밀바탕에 깔리는 풍부한 톤을 맡았던 Federico Olivares의 리듬기타가 풍부한 선율미를 들려주었는데 밴드에 건반 주자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려한 멜로디와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법이 돋보였다. 웅장하기 보다는 심플하고 밀도 있는 Dean Payne의 드럼 속주와 Lance의 평키한 블루스 기타 연주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의도한 듯 하다. Herbie Hancock의 명곡 'Maiden Voyage'까지, 스튜디오에서의 녹음된 곡들은 이렇게 끝이 났다.

이어서 재즈 스테이션에서 들려준 어쿠스틱 사운드의 곡들을 살펴보자. 녹음된 다섯곡 중에 MM에게 선택된 첫 곡은 일렉트릭 사운드로도 연주된 Miles Davis의 'So What'이다. 드럼에서 퍼쿠션으로 포지션이 바뀐 Dean Payne이 전해 주는 생동감 있는 리듬, Blue "Boogie Man" Rooney의 부드럽고 정확한 타이밍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펼쳐진 정교하면서도 현란한 Lance의 기타 연주가 'So What'의 또다른 맛을 느끼게 해 주는 곡이었다.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일렉트릭 사운드와 어쿠스틱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Kenny Dorham의 명곡, 'Blue Bossa'는 록과 블루스뿐만 아니라 재즈도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 밴드의 연주력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Lance의 재즈적인 풍부한 감성을 그의 임프로비제이션에서 엿볼 수 있고, Federico Olivares는 남미 출신답게 열정적이고 활기찬 리듬감을 정교한 프레이징과 열광한 기타 톤으로 나타내 주었다. 다음은 '금요일 세션의 기타 3중주'에서 Al Di Meola, John McLaughlin, Paco De Lucia가 연주했던 'Mediterranean Sunday'이다. 원곡과 다르게 기타 한 대는 빼졌어도 타악기와 베이스가 더해져 한층 완성도 있는 곡이 되었는데 피킹의 마술사이자 속주의 마스터라는 Al Di Meola에 뒤지지 않는 Lance의 뛰어난 연주력, Federico Olivares의 세련된 이국적인 리듬감은 기타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풍부한 선율미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게 해주었다.

## 녹음을 마친 후

잔잔한 가운데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적인 연주로 녹음이 끝났다. 신중하게 모니터를 마친 멤버들은 클럽 연주

를 위해 짧은 작별 인사만을 나누고 아쉬운 이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혼자 남은 리더 Lance Reegan-Diehl과 스튜디오에서 가진 인터뷰에는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로 서울재즈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김국현 선생님이 함께 해주셔서 원활한 통역으로 도움을 주셨다.

Lance와 베이스의 Blue는 자신들의 그룹과 함께 동남아 투어가

계획되어 있어 곧 한국을 떠난다고 한다. 프로젝트 그룹인 만큼 개인의 연주력과 인터플레이가 더 없이 필요했던 L. R. D. Band는 낯선 이국땅에서 소중한 추억을 가졌음이 틀림없고 MM와 독자 여러분들에게 또한 놓치지 아쉬운 선물이 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재즈 기타를 두 대

나 편성한 독특한 밴드 구성과 어쿠스틱과 일렉트릭 사운드를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 연주력을 갖춘 L. R. D. Band는 앞서 언급한 대로 쟁 세션을 계기로 뭉친 밴드이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랑 뿐 아니라 음악에도 국경이 없나보다. 무엇보다도 모두 '재즈'라는 공통분모를 품에 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어디에서든 재즈를 연주하는 뮤지션들이 되길 바라며 꼭 다시 한 번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길 기원하고 싶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공들리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L. R. D. Band의 음악을 들으며 여름을 맞이하는 것 뿐이다